언어능력평가 문제지

원		학과 (전공)		수험번호		성 명	

1. 다음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공익광고 포스터이다.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에 광고 문구를 삽입하려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1) 인터넷 상에서의 무분별한 표현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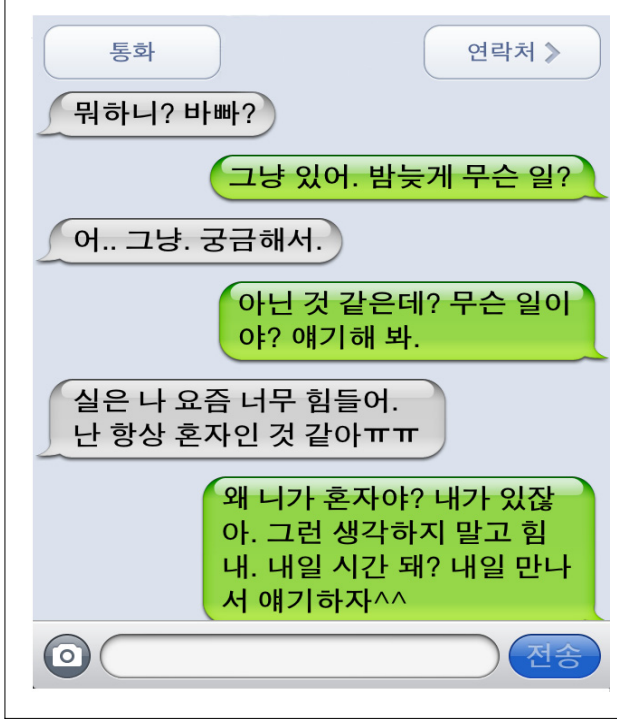
2) 포스터에서 연상되는 내용을 표현할 것

3)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일 것

① 당신의 마우스, 현대판 독사의 혀일 수도 있습니다.
②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 인터넷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③ 인터넷을 흔드는 마우스, 예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④ 잘못된 인터넷 문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⑤ 마우스를 누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누르고 계십니까?

2. 다음 <보기>는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광고 문구를 작성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보 기〉



① 고민은 혼자보다는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② 주변의 소외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③ 남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④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⑤ 나에게는 작은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기>는 (가)의 내용을 (나)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 것은? [3점]

〈보 기〉

(가) 사냥을 하던 이성계는 몹시 목이 말랐다. 때마침 우물을 발견한 이성계는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했다. 여인은 바가지에 물을 담은 후 버들잎 하나를 띄워 건넸다. 의아해진 이성계가 그 연유를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급하게 냉수를 드시면 탈이 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불어 가며 드시라고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

(나)

① 나무꾼이 산에서 곰을 만났다.
나무꾼은 죽은 척 하였다.
착한 곰은 나무꾼을 묻어 주었다.

②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불쌍한 신데렐라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③ 철수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영희가 독서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했다.
"어? 아무도 없네?"

④ 거북이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뭍으로 왔다.
토끼를 만난 거북이는 토끼에게 간을 달라고 했다.
토끼는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간을 준다고 했다.

⑤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섭다는 말에 엄마가 마중을 나왔다.
딸은 엄마가 함께 있어서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엄마가 말했다.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4. 다음은 사진전의 초대장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카메라를 든 철학자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展

혹독했던 추위를 녹이는 봄의 문턱, 사진기를 든 사람들을 위해 뜻 깊은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의 사진에 새로운 감각과 지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나에게 사진은 순간과 순간의 영원성을 포착하는, 늘 세심한 눈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드로잉은 우리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섬세한 필적으로 구현해 낸다. 사진은, 성찰을 드로잉하는 순간적인 행위이다."

"나에게 사진이란,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건의 의미에 대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표현하는 시각적으로 구상된 형태의 엄밀한 구성에 대한, 짧은 순간에서의 동시적 인식이다."

-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가)

<생 라자르 역 뒤에서>(1932)

① **'열정적 소통' 의 미학**
–사진은 작가와 피사체의 열정적 대화이다–

② **'이야기' 의 미학**
–사진은 포착한 상황에 이야기를 담는 것이다–

③ **'일치' 의 미학**
–사진은 대상 간의 유사성을 담는 것이다–

④ **'해학과 풍자' 의 미학**
–사진은 현실에 대한 해학적 풍자이다–

⑤ **'결정적 순간' 의 미학**
–사진은 사건의 본질을 구성해 내는 것이다–

5. (가)와 (나)는 같은 사안을 다룬 공익광고이다. (가)를 참고할 때 (나)의 빈칸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가) (나)

그만!

① 환경 위기,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② 희귀 생물종,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시다.
③ 기후 변화, 막지 않으면 기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④ 병드는 지구, 인간의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⑤ 지구 온난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큰 희망이 됩니다.

6. '거울'의 특성에 착안하여 '삶의 자세'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2점]

거울		
①	거울을 통해 보지 않으면 자기 눈에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함
②	거울은 대상과 똑같은 상을 보여 주지만 실제로는 좌우가 바뀐 상으로 비춤	→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님
③	우리는 거울 그 자체를 결코 볼 수 없으며 거울을 통해 반사된 상만을 볼 수 있음	→ 남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함
④	거울은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에 따라 다양한 것을 비추게 됨	→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
⑤	내가 인사를 하면 거울 속의 나도 인사를 하고, 웃으면 거울 속의 나도 웃음	→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다름

7. 다음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다음 중 해당 제품에 대한 가장 적절한 광고 문구는? [2점]

〈보 기〉

- 제품의 특징: 목공예 장인이 직접 만든 책갈피로 세월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변형되지 않으며, 특유의 은은한 향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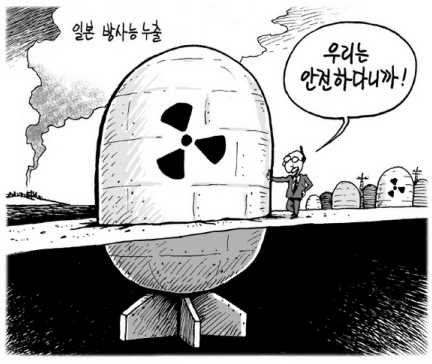
- 마케팅 전략: '느림'과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빠른 유행의 변화와는 달리 쉽게 변하지 않는 제품의 가치를 강조하여 아날로그적 감수성에 호소함.

- 광고 문구 작성 시 유의점
  1)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의 가치를 부각시킬 것
  2) 비교나 대조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타 제품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것
  3) 대구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일 것

① 장인의 손길이 깃든 제품, 이미 상품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② 문화의 향기를 담은 상품에 당신의 경쟁력까지 담았습니다.
③ 디지털의 세련됨과 아날로그의 품격, 하나의 제품에 담았습니다.
④ 디지털 시대가 빼앗아 간 당신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되찾아 드립니다.
⑤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는 유행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는 향기가 있습니다.

8.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만평이다. 각 만평에 대해서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만평에 연결된 비판이 〈보기〉의 방식과 <u>다른</u> 것은? [3점]

〈보 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이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 사실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은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명의 이기와 편의 시설은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원전 관계자가 말로만 안전하다고 외친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원전이 가져오는 효용과 위험을 비교해서,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인지를 따져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①

우리나라 기상청이 국민을 속였다거나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일본의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직접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주장과는 다르게 일본 원전의 방사능은 우리나라로 직접 유입되었다. 유입 사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예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기상청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상청이 정부나 원전 관계자의 외압 때문에 데이터의 해석을 고의로 변경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즉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과학 기술의 한계를 기상청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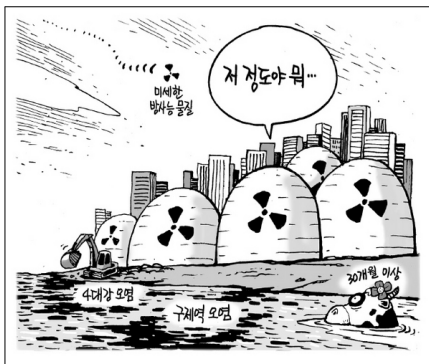
충분한 예고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이에 즉각적이고 정당한 대응을 하지 못한 한국 정부를 과거의 마루타에 빗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물론 위험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대형 재난을 맞이한 일본 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조직적이고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생체 실험 범죄에 빗대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응징을 복잡한 국제 정세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현대의 외교 행위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③

물론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방사능이 직접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보고, 그런 의견이 소통되는 것마저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빗겨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핵폭탄의 위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에 동반되는 위험 또한 원자력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과 편의를 따져본다면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력이나 풍력, 조력과 같은 자원도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점차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높이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④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이나 방사능 유입의 가능성과 그 위험에 대해서 다소 과장되거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을 모두 루머로 취급해서 막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학 기술에 근거한 인간의 지식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논의의 대상이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는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위험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⑤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작은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미세한 방사능 물질에 둔감한 사람들을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4대강 사업으로 오염이 심각하다거나 구제역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오염이 예고되었다는 주장은 모두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사고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세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요란법석을 떨지 않았던 사람들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미세한 방사능 물질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불과하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개 없는 선풍기>

"전기를 사용한 최초의 선풍기는 1882년 발명됐다. 날개를 이용한 그 방식은 127년간 변하지 않았다." 영국의 가전제품 기업, '다이슨(Dyson)' 본사에 가면 이렇게 쓰인 스티커를 볼 수 있다. 127년간 변치 않은 선풍기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 회사다운 문구다. 2009년 이 회사가 만든 '날개 없는 선풍기'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이 선풍기는 201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한여름 무더위를 이길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실 127년간 날개 있는 선풍기만 봐온 사람들에게 다이슨의 선풍기는 낯설다. 날개도 없이 어떻게 바람을 낸단 말인가? 하지만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은 거꾸로 생각했다. "왜 선풍기는 꼭 날개를 써야 하지?" 선풍기는 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날개를 분리해야 해 청소하기도 어렵다. 또 아이들이 돌아가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도 있어 위험하기도 하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풍기의 틀을 깼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동그란 고리 모양의 윗부분과 작은 원기둥 모양의 아랫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식 명칭은 '에어 멀티플라이어(Air Multiplier)'. 말 그대로 바람을 몇 배나 강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람을 강하게 만드는 원리는 비행기에서 빌려왔다.

비행기에 사용되는 제트엔진은 날개를 돌려 바깥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인다. 이 공기가 연료와 섞여 타면 고온의 기체가 나오는데, 이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비행기가 앞으로 가게 된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받침대에도 작은 모터와 날개가 들어 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 선풍기에 사용된 모터는 1초에 약 20ℓ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 받침대에서 빨아들인 공기는 위쪽의 동그란 고리로 올라간다. 여기로 올라간 공기는 시속 88km 정도로 빠르게 흐르다가 고리 안쪽에 있는 작은 틈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다. 이때 고리 모양 때문에 더 강한 공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속이 빈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고리의 단면이 바람을 몇 배나 강하게 만드는 비밀인 셈이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선 위쪽 고리의 단면을 살펴보면 비행기 날개 모양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리의 바깥쪽은 평평하게, 안쪽은 둥그렇게 생겨서 고리 안쪽의 기압이 바깥쪽보다 낮아지게 된다. 보통 비행기 날개는 윗면이 볼록하고 아랫면이 평평하게 생겼다. 이 때문에 날개 위아래에서 공기가 다른 속도로 흐르게 된다. 윗면의 공기가 아랫면의 공기보다 빠르게 흐르므로 윗면의 기압이 아랫면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위로 떠오르는 힘인 양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를 잘라 단면을 보면 고리의 바깥쪽은 평평하고 안쪽은 둥그렇다. 단면만 놓고 본다면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비행기 날개에서처럼 공기는 둥근 면에서 더 빠르게 흐르므로 고리 안쪽을 지나는 공기가 바깥쪽보다 빨라져 안쪽과 바깥쪽 부분에는 기압차가 발생하여 주변 공기가 고리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고리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은 받침대에서 빨아들인 공기의 양보다 15배 정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원리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개 없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날개 없는 선풍기가 만드는 바람은 일반 선풍기보다 더 시원하다. 또 일정한 바람의 세기를 만들 수 있다. 날개가 돌아가면서 불규칙한 바람을 만드는 선풍기보다 우수한 점이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처럼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가격은 30~70만 원까지 나가서 에어컨에 맞먹을 정도로 비싸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10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깬 제임스 다이슨. 그가 날개 대신 공기역학 법칙을 활용하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다. 어쩌면 날개 없는 선풍기의 시작은 다이슨의 대표 상품인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부터일지도 모른다. 먼지봉투 때문에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약해진다는 걸 알게 된 제임스 다이슨은 이를 개선하려 했다. 그는 무려 5,126번의 실패를 거친 뒤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후에도 연구개발은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슨은 엔지니어들이 진공청소기 모터로 손을 말리는 장면을 보게 됐다. 모터에서 나오는 바람이 손을 말리기에 좋았던 것이다. 이는 곧 '손 건조기(Air Blade)' 개발로 이어졌다. 작은 모터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으로 손을 말리는 방식인데, 손 건조기의 가운데 움푹 파인 곳에 손을 넣으면 자그마한 틈새로 시속 640km의 공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 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강력하게 손에 있는 물기를 쓸어가 버린다.

건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적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 16~18배 많은 주변 공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원리는 다시 날개 없는 선풍기에 적용돼 선풍기 몸체에 모터를 설치하게 됐다. 모터가 작은 바람을 흘려보내 주면 주변의 바람과 합쳐지면서 큰 바람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다. 제임스 다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한 것이 나의 힘이다."

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2점]

① '날개 있는 선풍기'의 바람은 불규칙적이다.
② 비행기의 추진력은 공기의 배출 과정에서 발생한다.
③ '날개 없는 선풍기'가 기존의 선풍기보다 우수하지 못한 면도 있다.
④ 비행기 날개에서 공기의 흐름은 날개 윗면이 아랫면보다 더 빠르다.
⑤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와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는 동일하다.

10. '날개 없는 선풍기'의 작동 과정에 대한 진술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고리 부분 안쪽의 기압은 바깥쪽 부분보다 더 낮다.
② 원기둥 부분에 있는 날개는 비행기의 날개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③ 작동 과정에서 원기둥 부분에서 배출된 공기는 고리 부분으로 상승한다.
④ 고리 부분의 모양은 배출된 공기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⑤ 고리 부분을 경계로 한 위아래의 공기 흐름은 비행기 날개를 경계로 한 위아래의 공기 흐름과 반대이다.

11. 위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공기의 성질로 볼 수 <u>없는</u> 것은? [2점]

① 기압차에 의해 큰 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③ 특정 부분의 공기의 이동은 주변의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④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차이가 나면 두 지역 사이에서는 기압차가 발생한다.
⑤ 볼록한 곳을 통과할 때 공기의 속도는 평평한 곳을 통과할 때보다 더 느리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전통 공간의 특징은 크게 비움과 무정형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투명성, 중첩, 원통(圓通) 등의 다른 많은 공간적 특징들은 대표적인 이 두 특징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비움과 무정형의 특징은 궁궐을 제외한 한국 전통 건축의 거의 모든 기능 유형과 계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민중들의 소박한 삶을 담당했던 초가나 민가는 물론이고 지배계층이었던 불교와 유교를 대표하는 사찰·한옥·서원 등을 이루는 대표적인 조형성이었다.

비움과 무정형은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전통 공간을 형성한다. 비웠기 때문에 무정형적인 것이며 무정형적이 되기 위해 비웠다는 의미이다. 둘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비움에 의해 무정형의 특징이 형성된 측면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움은 무정형을 있게 한 전제 조건이다. 무정형이 있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의미이다. 반면 무정형은 비움의 결과적 측면이 강하다. 혹은 최소한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전제 조건이나 필요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 전통 건축의 대표적 특징을 한 가지로 보자면 그것은 비움이 된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비움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한 가지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비움은 동양 사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며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이상적 상태이기도 하다. 조형적으로도 비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상태가 있다. 비워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상태이다.

다른 한 가지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의 의미이다. 비움은 채움을 처음부터 ㉡채움만으로 정의한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채움을 가능하게 한다. 채움을 채움만으로 본다는 것은 채움을 유형적·고형적 상태의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말 그대로 단순히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을 벽의 물질성에 의한 면적의 구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채움은 물리적 크기에 한정된다. 채움에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정성적(定性的) 상태는 수용되지 못하고 제약을 받는다.

반면 채움을 비움 다음의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에서 자유로워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때 비움이란 단순히 물건을 치워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체의 존재 상태가 갖는 다양성이 가능한 한 그대로 확보·유지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공간을 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벽과 빈 부분 사이의 상호관계로 볼 때 가능해진다.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으로서의 벽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벽의 역할은 거기까지로 한정된다. 공간을 있게 하고 공간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는 진수는 비움이다. 채움은 비움이 먼저 정의된 다음에 그렇게 비워진 상태 속에서 주체의 존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억압받지 않고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채움의 조형적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채웠다는 사실을 시각의 확인이 아닌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을 때 얻어진다. 감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주체의 정성적 존재 상태가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능적 직관에 의해 느낀다는 의미이다. 이런 깨달음은 채움이 비움과의 이분법적 관계에 의해 정의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상이 한국 전통 건축에서 비움이 갖는 두 가지 의미였다. 비움의 이런 두 가지 의미는 사상적으로도 대응성을 찾을 수 있다. 비움에 대한 전자의 의미는 공(空) 사상으로 대표되는 불교적 사상에 주로 대응된다. 비움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상태이자 모든 존재의 본래 참모습이라는 가르침이다. 비움은 우주 자연의 진리로 이해된다. 한 번 비웠으면 가장 이상적 상태에 도달한 것이니 더 이상 채우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비움은 무위로 대표되는 도가적 사상에 주로 대응된다. 물론 도가에서도 비움 그 자체를 하나의 이상적 존재 상태로 본다. 그러나 도가적 비움의 의미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가에서의 비움은 채움을 더 잘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의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비움은 진정한 채움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잘못된 채움이 가져오는 폐해를 피하기 위한 지혜이다. 또한 옳게 채움으로써 인간을 돕는다는 현실적 목적을 갖는다.

12. '한국 전통 공간과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한국 전통 공간의 '비움'과 '무정형'의 특징은 당대의 최고 건축물인 궁궐 건축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② 투명성, 중첩 등 한국 전통 공간의 다양한 특징들은 '비움'과 '무정형'의 단계를 거쳐 변형·발전된 것이다.
③ 한국 전통 건축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무정형의 공간과 비움의 공간이 적절한 비례로 배치될 때 비로소 드러난다.
④ 한국의 전통 불교 건축물과 유교 건축물,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건축물 등 대부분 유형의 건물에 '무정형'의 특징이 나타난다.
⑤ 한국 전통 공간의 대표적 특징인 '비움'은 공(空)으로 대표되는 불교적 사상에서, '무정형'은 무위로 대표되는 도가적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은 불교적 사상에서 배격되는 반면, 도가적 사상에서는 ㉠을 전제로 수용된다.
③ ㉢은 ㉠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가 있으므로 ㉢은 ㉠에 대해서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과 ㉡은 모순 관계에 있고, ㉡과 ㉢은 목적을 공유하되 방법을 달리하므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벽을 물질성에 안주해서 공간을 구획하는 물리적 존재로만 인식한다면, ㉢은 물리적 존재인 벽이 주체의 존재를 제약하고 지배하는 속성에 주목해서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4. 위 글에서 말하는 한국 전통 공간의 특성과 관련이 먼 것은? [3점]

① 서원의 넓은 강당은 서원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위용을 보여 준다. 수많은 유생들이 강당을 메울 때 비로소 그 서원이 지탱하고 있는 유생 공동체의 생명력과 학문적 성찰이 드러나게 된다.
② 한지를 바른 한옥의 창은 빛과 소리를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조심스레 전달한다. 우리는 방안에 앉아서 따스한 햇빛과 은은한 달빛을 느낄 수 있으며, 흐르는 계곡 물소리 위에서 다양한 생각에 잠길 수 있다.
③ 한옥의 많은 문은 문을 경계로 한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쪽과 저쪽이 넘나들고 소통하도록, 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문을 통해 이쪽의 감정이 저쪽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④ 기와지붕의 곡선은 단지 물이 효율적으로 흘러내리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기와지붕의 곡선이 만드는 공간의 진정한 의미는 곡선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와가 맞닿아 있는 하늘의 계절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⑤ 사찰의 풍경은 웅장하거나 아름다운 건축물의 겉모습 말고도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대웅전 앞마당에 놓인 건물의 그림자며, 처마 끝에 달린 풍경(風磬)의 움직임과 소리까지, 지붕 너머 산자락에 깔린 단풍의 색감까지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풍경(風景)으로 만든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키나와 구시(久志)촌 출신 여성과 결혼한 부산 출신 구중회(具仲會)는 다니가와 노보루(谷川昇)라는 이름으로 구메지마(久米島)에서 행상을 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20일 밤 구메지마에 주둔하고 있던 가시마(鹿島) 부대는 그의 일가를 습격하여 가족 모두를 '스파이'로 지목하여 학살했다. 이 학살 현장에는 섬 주민들도 있었다. 결국 이 일가는 유골이 되어 1977년에 부산으로 송환되었다. 이 오키나와 전투 당시의 구메지마 학살사건을 ㉠오키나와인도 가해자라거나 오키나와도 조선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식의 단순한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 소학교에서 있었던 교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관동대지진 당시 표준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조선인이 살해되었다. 너희들도 자칫 오인되어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인되어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교사의 발언을 곧 식민지배의 계층구조라든가, 오키나와나 조선이나 같은 식민지였다는 식의 난폭한 유형론으로 도출해서는 안 된다. 오키나와의 현실을 일반적인 제국주의 유형론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키나와의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더 위압적이 되어 가는 군사적 폭력을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낯선 타자의 것으로 믿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오키나와도 식민지에 불과했다는 관점은 오키나와인이 오키나와인을 살해했으며, 오키나와인이 조선인을 살해했다는 사실로부터 도망가서 반제국주의의 양심의 영역으로 편안하게 숨어들어 가려는 시도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사의 발언에서 오히려,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그리고 언어 행위를 통해서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극한의 기대감을 무엇보다도 먼저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장이라는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에서는 지배 구조의 정리된 배치도가 아니라, 폭력에 대치하는 말이 지니는 가능성의 임계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에 거는 기대는 바로 옆에서 이미 폭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 '오인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살해당한 자 바로 옆에 있는 자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암시하는 폭력은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살해당한 시체 옆에 있는 자는 그 다음 순간에 공범자가 되어 살해하는 자 쪽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을 회로로 하여 살해당하는 쪽과의 일체화가 늘 존재한다. 혹은 시체 옆에 있는 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살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한, 아직 시체는 아니다. 그리고 시체 옆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언어 행위의 임계로부터 발견해 내야 할 것은 ㉡폭력에 저항할 어떤 절박한 가능성이다. 그것도 말로서 말이다.

15. 다음 중 ㉠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3점]

① 1930년대 도쿄에서 일하던 오키나와 출신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오키나와 출신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② 일제강점기 당시 총독부에 근무했던 조선인들은 종종 조선말과 조선 음식에 대한 경멸감을 일본인보다 더 심하게 과장해서 표현하곤 했다.
③ 제국주의 권력에 의해 전시에 동원된 종군 위안부는 대부분 조선인들로 구성되었지만 강제로 징집된 일본인 위안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④ 일제가 만주국을 세워서 만주지역으로 식민지를 확장할 당시 적극 관동군에 협력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선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인 관동군 못지않게 충성했지만 결국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⑤ 1940년대 전쟁 말기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오키나와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데, 대부분 오키나와인이 가해자였지만 이들의 피해는 과장해서 알려진 반면 조선인의 심각한 피해는 축소되거나 무시되었다.

※ 〈보기〉는 위 글의 서문 중 일부이다.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는 일찍이 역사학이란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순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살짝 들여다본 미래를 기존 집단의 점유물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역사적 사건에서 어느 특정한 결기자들의 의의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투쟁이 한정적 의미만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될 도망친 자, 전향한 자, 비겁자로 여겨진 겁쟁이들이, 어느 순간 방어태세를 취하는 자들로 바뀌는 것, 즉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때 과거의 역사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순간이 발견되며, 동시에 아직도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을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공중에 떠 있게 할 것이다. 역사학이란 이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16. 위 글과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내포된 의미와 그 관점이 다른 것은? [3점]

① 폭력을 감지한 자들이 방어태세를 취하는 그 수동성 자체에 의의가 있다. 즉 '수동성에 잠재력이 항상 깃들어 있다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② 결기한 자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의 미래가 결기한 자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건 '겁쟁이'들의 연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③ 살기 위해 질서를 받아들이지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겁쟁이'가 사는 데에는 항상 그런 양의적인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④ 결기한 자들이 엿보았던 미래를 결기한 자들의 독점물로 삼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로 간주되는 존재에게서 다시 확보하는 것, 여기에 사상의 역할이 있다.
⑤ 결기라는 힘이 미래를 여는 유토피아의 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이다. 폭력을 예감한 이들의 새로운 가능성은 그들이 저항을 결단하는 순간에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17. 〈보기〉를 참조할 때, 위 글의 필자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공모자에 대한 연민만 있을 뿐 오히려 직접적 저항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② 눈앞의 폭력에 직면한 사람들이 언어 행위를 통해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③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살해하는 자가 되는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④ 일반적인 제국주의 이론은 수많은 사례들을 일반화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⑤ 지배-피지배의 식민지 역사에서 직접적인 가해 행위와 가해 행위에 대한 침묵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한 역사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코틀랜드행 기차에 앉은 두 남자가 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

"선생님, 화물용 선반 위에 있는 이상한 꾸러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한다.

"아, 그것은 맥거핀입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묻는다.

"맥거핀? 맥거핀이 뭡니까?"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방에서 사자를 잡는 데 쓰는 장치입니다."

그러자 질문을 했던 사람이 되묻는다.

"아,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방에는 사자가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맥거핀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 이야기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맥거핀(MacGuffin)'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린다.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방에서 사자를 잡는 도구, 맥거핀. 그러나 그쪽 지방에는 사자가 없다. 그렇다면 맥거핀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 일반적으로 '맥거핀'은 영화의 주제와는 크게 관계없지만 관객의 시선을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소재를 의미한다. 이제 맥거핀의 의미를 생각하며 위 일화를 다시 읽어 보자. 이야기의 원래 주제가 '꾸러미의 내용물'이었다면,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야기는 지속된다. '사자가 없는 지방에서 사자를 잡는 도구'가 등장하자 질문을 한 사람은 어리둥절해 한다. 과연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러미의 내용물이 아니다. 그 이상한 꾸러미가 시선을 빼앗고, 궁금증을 유발하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만들어낸 용어이자, 대부분의 스릴러 영화에 빠짐없이 등장한다고 하는 맥거핀. 이 기묘한 존재는 '진정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낸다.

(다) "한 무리의 사내들이 탁자 위에서 포커게임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게임에 몰입해 있는데, 탁자 밑에는 사내들이 모르는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영화는 사내들의 몰입한 표정과 시한폭탄의 시계를 반복해서 보여 준다. 관객들은 폭발 시간에 다가갈수록 긴장하게 되고, 폭탄의 존재를 모르는 사내들의 천연덕스러운 행동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폭발까지 불과 3초를 남겨 놓고 관객이 최고의 긴장을 느끼고 있을 때, 사내들은 일제히 방문을 열고 나가 버린다. 그리고 관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게 된다."

이 장면 속의 폭탄에 주목해 보자. 영화 속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폭탄은 등장인물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한 포커 장면은 쓸모없는 폭탄의 존재로 인해 서스펜스로 가득한 장면이 되었다.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의미 있는 소재'보다 '의미가 없더라도 이야기를 이어지게 하는 대상'이 빛을 발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된다. 말하자면 히치콕은 무의미한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라) "맥거핀은 하나의 영화적인 장치로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영화에서 그 비밀 계획서나 문서, 암호 등이 등장인물들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히치콕의 이 말은 맥거핀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이야기를 계속 끌고가는 구실이 되는 대상이나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령,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서 등장인물이 쫓고 있는 기밀문서는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끝내 드러나진 않지만 영화 속의 계속된 추격전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맥거핀이 된다. 히치콕 자신도 이 영화의 맥거핀에 대해 가장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최고의 맥거핀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히치콕은 맥거핀의 특정한 의미에 대해 고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 영화를 완성하는데 있어 그럴듯한 맥거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영화 <오명>에서 우라늄 폭탄을 맥거핀으로 사용하기 위해 히치콕이 과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며 실제 폭탄의 여러 특성에 대해 검토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히치콕은 아무 의미 없는 속임수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맥거핀이 영화의 서사 속에 그럴듯하게 자리 잡는 것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트뤼포가 말하듯, 히치콕의 영화는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맥거핀 위에 구축되기 때문에" 그럴듯한 맥거핀을 찾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만 마치 자물쇠의 열쇠가 돌아가듯 영화의 서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18. (가)~(라)의 진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2점]

① (가)에서는 맥거핀의 유래를 일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정의의 방식으로 맥거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가), (라)에서는 대화를 통해 맥거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 (다)에서는 제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⑤ (다), (라)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9. 〈보기〉 ㉠~㉤ 중에서 위 글의 시한폭탄과 그 기능이 같은 것은? [2점]

〈보 기〉

아리조나의 피닉스에 위치한 평범한 부동산 회사의 직원 마리온 크레인. 마리온은 그녀의 애인 샘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샘과 마리온은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결국 마리온은 회사 공금 ㉠<u>4만 달러를 갖고 도주한다</u>.

마리온은 샘을 만나러 가기 전 도로변에 있는 허름한 베이츠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다. 모텔의 친절한 주인 노먼 베이츠는 자신은 모텔 바로 뒤에 있는 빅토리아풍의 저택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날 밤, ㉡<u>마리온은 샤워 도중 누군가에게 살해된다</u>.

마리온이 실종되자 마리온의 언니 라일라와 애인 샘,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탐정 밀튼 아보가스트 세 사람이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선다. 아보가스트는 마리온의 자취를 쫓던 중 그녀가 머물렀던 베이츠 모텔을 찾아내게 된다. 아보가스트는 ㉢<u>노먼 베이츠와 대화를 나누다 그를 의심하게 된다</u>. 결국 아보가스트는 혼자 노먼의 어머니를 만나러 저택에 숨어들었다가 살해를 당한다. 라일라와 샘은 보안관으로부터 노먼의 어머니가 8년 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모텔로 돌아온다. 그리고 ㉣<u>두 사람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다</u>. 결국 노먼 베이츠는 정신분열증 환자이며 죽은 어머니로 분장해서 살아가는 ㉤<u>살인광이라는 것이 밝혀진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위 글을 통해 알 수 <u>없는</u> 것은? [3점]

① 맥거핀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은 극적 전말이 확고해지는 순간이다.
② 히치콕은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 맥거핀이라는 속임수를 그럴듯하게 활용하였다.
③ 맥거핀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면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④ 스릴러 영화에 맥거핀이 자주 활용되는 이유는 무의미한 소재로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히치콕은 맥거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이 '의미 없음'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설을 밤(栗)에, 시를 복숭아에 비유한다면 수필은 곶감(乾柿)에 비유될 것이다. 밤나무에는 못 먹는 쭉정이가 열리는 수가 많다. 그러나 밤나무라 하지, 쭉정나무라 하지는 않는다. 그러고 보면 쭉정이도 밤이다. 복숭아에는 못 먹는 뙈기 복숭아가 열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역시 복숭아나무라 하고 뙈기나무라고는 하지 않는다. 즉 뙈기 복숭아도 또한 복숭아다. 그러나 감나무와 고욤나무는 똑같아 보이지만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고욤나무에는 고욤이 열린다. 고욤과 감은 별개다. ㉮소설이나 시는 잘못 되어도 그 형태로 보아 소설이요 시지 다른 문학의 형태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학 수필과 잡문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수필이 잘되면 문학이요, 잘못되면 잡문이란 말은 그 성격을 구별 못한 데서 온 말이다. 아무리 글이 유창하고 재미있고 미려해도 문학적 정서에서 출발하지 아니한 것은 잡문이다. 이 말이 거슬리게 들린다면 문장 혹은 일반 수필이라고 해도 좋다. 어떻든 문학 작품은 아니다.

밤은 복잡한 가시로 송이를 이루고 있다. 그 속에 껍질이 있고 또 보늬*가 있고 나서 알맹이가 있다. 소설은 복잡한 이야기와 다양한 변화 속에 주제가 들어 있다. 복숭아는 살이다. 이 살 자체가 천년반도(千年蟠桃)**의 신화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시는 시어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곶감은 어떠한가. 감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 푸른 열매가. 그러나 그 푸른 열매는 풋감이 아니다. 늦은 가을 풍상을 겪어 모든 나무에 낙엽이 질 때, 푸른 하늘 찬 서리 바람에 비로소 붉게 익은 감을 본다. 감은 아름답다. 이것이 문장이다. 문장은 원래 문채(文采)란 뜻이니 청적색(靑赤色)이 문(文)이요 적백색(赤白色)이 장(章)이다. 그 글의 찬란하고 화려함을 말함이다. 그러나 감이 곧 곶감은 아니다. 그 고운 껍질을 벗겨야 한다. 문장기(文章氣)를 벗겨야 참 글이 된다는 원중랑(袁中郞)***의 말이 옳다. 그 껍질을 벗겨서 시득시득하게 말려야 한다. 여러 번 손질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당분이 겉으로 나타나 하얀 시설(柹雪)****이 앉는다. 만일 덜 익었거나 상했으면 시설은 앉지 않는다. 시설이 잘 앉은 다음에 혹은 납작하게 혹은 네모지게 혹은 타원형으로 매만져 놓는다. 이것을 곶감을 접는다고 한다. 감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곶감이라야 오래 간다.

수필은 이렇게 해서 만든 곶감이다. 곶감의 시설은 수필의 생명과도 같은 수필 특유의 것이다. 곶감을 접는다는 것은 수필에 있어서 스타일이 될 것이다. 즉 그 수필, 그 수필마다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곶감의 시설은 무엇인가. 이른바 정서적·신비적 이미지가 아닐까. 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신비가 수필을 둘러싸고 있는 놀과 같은 무드다. 수필의 묘는 문제를 제기하되 소설적 테마가 아니요, 감정을 나타내되 시적 이미지가 아니요, 놀과도 같이 아련한 무드에 쌓인 신비로운 정서에 있는 것이다.

*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리며 신선이 사는 곳에 있는 복숭아.
***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학자.
**** 곶감 거죽에 돋은 하얀 가루.

21. '수필의 성격'을 '곶감 만들기'에 비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곶감 만들기		수필의 성격
①	풋감	→	소재의 다양성
②	잘 익은 감	→	문학적 정서를 담아 낸 문장
③	껍질 벗기기	→	수사적 기교에 대한 경계
④	말리기	→	대상에 대한 성숙한 성찰
⑤	곶감 접기	→	작가의 개성적 스타일(형태)

22. ㉮를 통해 알 수 있는 필자의 문학관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소설과 시는 각각의 형태가 있다. 그렇다면 수필의 형태는 어떠한가? 필자는 이에 대해 문학 장르의 조건인 '형태'에 대해 답하지 않고 '문학적 정서'라고 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 문학의 3대 장르는 시, 소설, 극(劇)이다. 필자가 극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수필의 문학 장르적 성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정한 조건인 '문학적 정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③ 문학 장르는 사회·역사적 산물이다. 필자는 문학 장르의 '형태'를 공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말하는 '문학적 정서'는 역사성을 담고 있는 통시적 개념이므로 수필의 문학 장르적 가능성의 조건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④ 시와 소설은 나름대로의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수필 작가가 언어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수필의 문학 장르적 특성을 언어의 측면이 아닌 '형태'의 측면에 국한해서 설명하고 말았다.

⑤ 문학 장르들은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시적인 소설, 소설적인 시가 있을 수 있고 시적인 수필, 소설적인 수필도 있을 수 있다. 필자가 말하는 '문학 수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학 장르와 상호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수필의 개별 '형태들'을 규명해내야 한다.

23. <보기>의 ㉠~㉤ 중에서 위 글의 곶감의 시설이 의미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보 기>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거와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芳香)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無味)한 것이 되어버린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 보아야 된다. 세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플로니우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가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물전 개조개 한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나)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언제인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한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히 보드라운 종이에 받어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다) 잠깐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낯이 많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구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낯선 낯익음에 당황하여
나는 한동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도 내가 누구인지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는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고양이 가죽 안에 들어가 있었다.
오랫동안 직립이 몸에 배었는지
네발로 걷는 것이 좀 어색해 보였다.
그는 쓰레기 뒤지는 일을 방해한 나에게 항의라도 하듯
야오옹, 하고 감정을 실어 울더니
뜻밖에 아기 울음소리가 터지는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는 다른 고양이들처럼 서둘러 달아나지 않았다.
슬픈 동작을 들킨 제 모습에 화가 난 듯
고개를 숙이더니
㉤굽은 등으로 천천히 돌아서서 한참 동안 멀어져갔다.

* 홍분이 가라앉기도.
** 방금. 막.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 (나)는 미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토대로 쓰였다.
② (가), (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애틋함을 환기하고 있다.
③ (가), (나), (다)는 시적 대상에게 무심했던 자신의 미안함을 담고 있다.
④ (가), (나), (다)는 대상이 겪는 고난을 소재로 하여 시를 써 나가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의인화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25.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의 시를 감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적 여운이란 절제와 압축 혹은 생략과 함축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이다. 즉 독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여지, 혹은 독자 스스로 빈 곳을 상상하여 채울 수 있는 여지를 줄 때 강렬한 시적 여운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① (가)는 '캄캄하게 울음이 멎었'다는 낯선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가 그 의미를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어.
② (가)는 추측의 표현인 '~으리라'라는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시적 여운을 주고 있어.
③ (나)는 새끼거미의 '엄마와 누나나 형'을 언급하며 그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를 독자로 하여금 상상해 보게 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어.
④ (나)는 앞부분과의 대비를 통해 거미를 쓸어버리지 못하고 '고히 보드라운 종이에 받어' 밖으로 버리는 '나'의 마음을 짐작하게 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어.
⑤ (다)는 다른 부분에서는 고양이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주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천천히 돌아서서 가는 고양이의 심정은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어.

26. 다음 중 밑줄 친 ㉠~㉤이 환기하는 정서가 다른 하나는?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27. 〈보기〉는 (다)시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길고양이의 모습이 예리한 관찰력을 토대로 포착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생태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연상해 냄으로써 현대 사회의 (ⓐ)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시적 화자는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이를 찾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다. 버려진 동물의 애처로움과 더불어 그 속에서 타자(他者)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 근원의 본질적인 질문을 야기한다. 인간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겪는 (ⓑ)의 단편들이 고양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
①	인간성 상실	생존경쟁
②	인간성 상실	노동 소외
③	인간성 상실	군중 속의 고독
④	생명 경시 풍조	물질만능주의
⑤	생명 경시 풍조	인간중심주의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무(子務)와 자혜(子惠)가 밖에 놀러 나갔다가 장님이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네. 자혜가 휴 하고 한숨지으며 이렇게 말했지. "저런! 자기 몸에 걸치고 있으면서도 제 눈으로 보지 못하다니." 그러자 자무가 말했지. "비단옷을 입고 컴컴한 밤길을 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나을까?" 마침내 두 사람은 청허(聽虛)선생한테 가 물어보았네. 하지만 선생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네. "난 몰라! 난 몰라!"

옛날에 말일세, 황희 정승이 조정에서 돌아오자 그 딸이 이렇게 물었다네. "아버지, 이(蝨) 있지 않습니까? 이가 어디에서 생기나요? 옷에서 생기지요?" "그럼." 딸이 웃으며 말했네. "내가 이겼다!" 이번엔 며느리가 물었네. "이는 살에서 생기지요?" "그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네. "아버님께서 제 말이 옳다고 하시네요!" 그러자 부인이 정승을 나무라며 말했네. "누가 대감더러 지혜롭다 하는지 모르겠군요. 옳고 그름을 다투는데 양쪽 모두 옳다니요!" 황희 정승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네. "너희 둘 다 이리 와 보렴. 무릇 이는 살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고 옷이 없으면 붙어 있지 못하는 법이니, 이로 보면 두 사람 말이 모두 옳은 게야. 그렇긴 하나 농 안의 옷에도 이는 있고, 너희들이 옷을 벗고 있다 할지라도 가려움은 여전할 테지. 그러니까 이가 생기는 곳은 이 둘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거늘 바로 살과 옷의 '사이'인 게지."

임백호가 말을 타려 하자 마부가 나서며 아뢰었다네. "나리 취하셨나 봅니다. 목화(木靴)와 갖신을 짝짝이로 신으셨습니다." 그러자 백호가 이렇게 꾸짖었지. "길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은 내가 목화를 신었다고 할 것이요, 길 왼쪽에서 보는 사람은 내가 갖신을 신었다고 할테니, 내가 상관할 게 무어냐!"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볼진댄, 천하에 발만큼 살피기 쉬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보는 방향이 다르면 목화를 신었는지 갖신을 신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걸세. 그러므로 ㉠진정지견(眞正之見)은 실로 옳음과 그름의 '중(中)'에 있다 할 것이네. 가령 땀에서 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 알기 어려운 바, 옷과 살 사이에 본래 공간이 있어 어느 한쪽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니, 누가 이 '중'을 알겠나. 말똥구리는 제가 굴리는 말똥을 사랑하므로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 또한 자기에게 여의주가 있다 하여 말똥구슬을 비웃지 않는 법일세.

28.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역순행적인 구성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②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대화의 방식을 통해 두 대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④ 권위 있는 논평을 들어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⑤ 허구적인 상황을 상상하여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9. 밑줄 친 ㉠에 대한 필자의 태도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점]

① '중'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성찰이 필요하다.
② '사이'를 중시하는 것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다.
③ 대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양쪽을 동시에 조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진정한 인식'으로서의 '중'은 대립적인 것을 지양하면서도 함께 품는 것이다.
⑤ 참된 인식은 사유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경지이다.

30.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필자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우선 자신의 생각대로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
② 마음으로 보는 것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③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물의 중심을 인식해야 한다.
④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물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어렵다.
⑤ 고정된 사고방식으로는 사물의 참모습을 인식하기 어렵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얼빠지는 날이 된다니, 그럼 변사또께서 봉고파직이라도 당한단 말인게유, 오라버니?"

"봉고파직뿐이겠느냐? 어사또 출두해 청문하게 되면 돈구멍이든 밑구멍이든 안 빠져든 구멍이 없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겸해 서류상 환곡과 전결에는 빼돌린 구멍만 숭숭 뚫렸을 테니 여기 들어와 옥구멍이나 들여다보는 신세가 될 게 분명하다."

"변사또 같은 분에게 ㉠구멍공사 누명이 웬 말이오?"

"일이 이리 되고 보니 그놈의 치도곤도 그리워진단 말이냐? 아니면 그 허수아비의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로 믿게 됐다더냐? 말 거슬러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잔말이 참으로 많구나. 어쨌든 자네는 ㉡열녀로 수절할 몸이니 좋다고 기절하지나 말고 마음 하나 꼭 붙들어매도록 하게. 이번 일은 자네 한몸 수절하는 일에 달렸으니. 자네에게 백년가약은 전임 사또 자제 책방도령뿐이 아니던가?"

그녀의 말에 옥란이 눈을 치뜨면서 재깔였다. 옥란은 그녀에게 일부종사 이부불경 다짐을 받은 뒤에야 군뢰사령을 이끌고 다시 옥문을 나섰다. 옥란과 군뢰사령이 다녀간 뒤부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슬픔이 넘쳐흐른 것일까?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고여들기 시작했다. 변사또는 그녀가 마음만 열어준다면 그 어떤 형극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고 누차 얘기했다. 북촌에 본가를 둔 마흔다섯살의 양반이 열아홉 천기 소생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게 다였다. 그게 왜 봉고파직의 사유가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관기들의 마음은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막무가내 동헌 마룻방으로 불러들여 밤을 보내는 그 수많은 수령들은 왜 처벌하지 않는 것인가? 책방도령이 어사또가 되어 용성관 마루에 서서 호령한다 해도 그녀는 변사또에게 일말의 동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능구렁이 같은 향리들에게 속아넘어간 다른 어사가 자신에 대해 연정을 불태운 게 죄라면 죄랄 수 있는 변사또가 일순간 탐관오리로 매도된다면?

(중략)

(나) 저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 모든 문제가 그녀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전후사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어머니가 기생인 그녀로서는 태어날 때부터 기안(妓案)에 이름을 올리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몇해 전, 그녀와 사또 자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그녀는 달마다 초하루와 보름에 있는 기생 점고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새로운 부사가 임지에 도착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월 초하루에 남원으로 부임한 변부사는 광한루에서 옷을 갈아 입고 객사인 용성관 내 경기전에 들러 문안례와 삭망례를 겸해 전패(殿牌)와 궐패(闕牌)를 마주하고 ㉣향망궐배(向望闕拜)를 올린 뒤, 첫 업무로 기생 점고를 시작했습니다. 기생 명부에 등재된 인원과 실제 인원이 일치하는지 살피는 기생 점고는 원래부터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부임 첫날 실시한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절차였습니다. 게다가 변부사는 임금 앞에서 ㉤여악(女樂)을 철폐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정암 조광조 선생을 숭상했기 때문에 관기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사실 제 동료들만 해도 기둥서방으로 나서는 판국이며 김좌수 같은 구실아치들은 대놓고 옥란 같은 기생을 첩 삼아 거느리고 다녔으니 객사나 향청을 드나드는 양반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변부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초하루를 맞아 기생 점고를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부임 초부터 향청과 질청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견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임 부사와 아전 사이의 힘겨루기는 ㉥기생 점고에서 시작됐단 말씀입니다.

(중략)

(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홍살문 바깥에서 요란스레 외치는 소리가 내삼문 안으로 밀려들었다. 한가하게 이른 봄바람이 밀려들던 근민헌 처마 아래가 갑작스레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이속들이 분주하게 내삼문 밖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한쪽에 차려놓은 상을 두고 수염만 매만지던 향교의 늙은이들이며 정신없이 연희를 준비하던 광대들이며 연신 음식을 나르던 주모 등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제 오시는 모양이구려."

임실 현감, 구례 현감, 진주 판관, 운봉 영장 등 이웃 읍 수령들과 함께 앉아 있던 변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근민헌 뜰 앞으로 성큼성큼 내려섰다. 그 모습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남원부에 대한 암행 감찰이 끝났으니 사실관

계를 확인코자 몇날 며칠에 출두하리라는 선문(先文)을 받아놓은 뒤라 변부사에게는 암행어사 출두 호령이 가문 날 쏟아지는 빗소리만큼이나 반갑기만 했다. 호령소리가 무섭게 어사 일행은 외삼문을 지나 솟을삼문을 거쳐 근민헌 뜰 앞으로 들어왔다. 어사 박일평이 모습을 보이자, 근민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를 갖췄다.

"오시는 노정에 고단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자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직문 아래에서 동문수학하던 시절이 엊그제인 듯한데, 자네도 벌써 노옹이시네."

(중략)

"개구리도 죽을 때는 꽥 하고 죽는다고 그 좌수놈이 악에 받쳤는지, 저더러 수절 맹세하는 양민의 부녀자에게 수청 들라고 한 죄, 누대에 기리기리 전하리라고 소리칩디다. 그 말 같잖은 소리에 일단을 장독이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형장을 내리치고 옥에 밀어넣었건만 그 소리가 영 잊히지 않습니다그려."

변부사의 말에 박어사가 껄껄거리고 웃었다.

"아니, ⓐ사관과 지필묵이 다 우리 손에 있는데, 백년도 살지 못할 저희 같은 것들이 어찌 누대를 들먹인다 말이오.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 우리 사또께서 심약해지신 모양이오. 우리 옛날에 경서 외고 유람할 때처럼 오늘은 그저 모든 것을 잊고 놀아보도록 합시다. 여보게, 호장, 본관 사또 심기도 불안하온대 풍악을 한번 울려보게나."

호장이 내삼문 쪽으로 호령하자, 화문석과 북을 든 광대 두 명이 허리를 숙이며 뜰 안으로 들어섰다. 하나는 화문석을 깔고 앉아 북을 치고 하나는 일어서서 소리를 하는데, 박어사는 물론 변부사도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저 소리는 무엇이냐?"

"광대들이 펼치는 ⓑ소학지희(笑謔之戱) 중 타령이라 아뢰오."

31. (가)~(다)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가)에서는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② (나)에서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사건의 전모를 제시한다.
③ (다)에서는 작품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종합되어 서술된다.
④ (가)와 (나)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관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진술된다.
⑤ (나)와 (다)에서는 '보여주기' 방식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이 서술된다.

32. 위 글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옥란"은 유교 이데올로기를 숭상하고 있다.
② "그녀"는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
③ "저"는 여악의 철폐가 지니는 긍정성에 동의하고 있다.
④ "변부사"는 중앙 정부의 권위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⑤ "박어사"는 타락한 중앙 관료들을 감시하고 있다.

33.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다)의 ⓐ:ⓑ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3점]

〈보 기〉

위 작품에 등장하는 '소학지희 중 타령'은 작품에서 (나)의 '저'에 의해 구술되어 전승된 것으로 서술되며, 이후 현존하는 「춘향전」의 원형이 된다. 결국 옥중에서 죽은 '춘향'의 이야기는, 이후 '광대'들의 연희를 통해 재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타령이 지닌 예술 장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4.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위 글과 가장 유사한 기법을 사용한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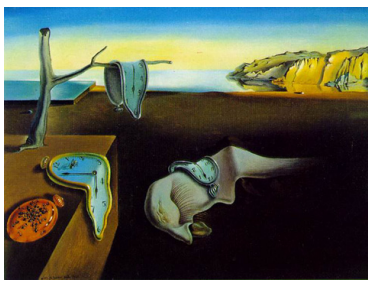
「춘향전」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변주되어 재창작되어온 작품이다. 18세기 판소리에서는 봉건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강조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춘향의 능동적인 여성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아예 방자나 월매 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품 등도 창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유형이다. 대면 접촉 또는 목소리를 통한 고객과의 직접 접촉을 해야 하는 간호사, 교사, 창구업무 종사자, 승무원, 보모, 판매원과 같은 대인 서비스직의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에 해당한다.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고객 만족'이 기업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친절과 웃음을 강요받는 감정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직업병의 문제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감정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격적으로 친화적이며 활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고객 접객 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식으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기업의 방식은 여성의 눈으로 본다면 매우 문제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가족 및 노동 시장에서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던 감정노동을 둘러싼 성차별적 통념들을 재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기업은 유쾌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장시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인내할 수 있는 '감정적 지구력'을 가진 사람이 감정노동자가 되기를 채용 및 기업 내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강요한다. 그러면서 '여성'이야말로 감정노동에 가장 적합한 노동력이며, 서비스는 '여성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감정노동은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로서, 여성에게 특히 적합한 직종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여성의 친절함, 미소, 배려와 같은 감정은 노동능력으로 인식되지도, 평가되지도 않는다. 육체노동의 강도나 지식의 유무를 중심으로 숙련을 평가해왔던 기존 노동평가 체계에 의하면, ㉠감정노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임금을 더 지불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육체'와 '지식'으로 이분화된 '노동' 개념은 감정노동을 인식하거나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경쟁 전략으로 채택되는 서비스 산업에서조차, 감정은 중요한 노동능력도, 전문적인 숙련 기술로도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노동의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정노동 관련 직업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하위 서비스직이다. 이러한 감정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천편일률적인 구인 광고 문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고객 감동의 경영 시대에, 여전히 대다수 기업이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주변 업무로 간주하고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낮은 직급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위방패(status shields)가 결핍되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종속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종류의 사람들로 더 쉽게 재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균형과 몸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와해되기도 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의 공식적·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목소리, 세밀한 눈썹 움직임, 얼굴 근육의 움직임까지도 친절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하고, 감정 불일치 상황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 각종 보상 및 처벌을 통해 감정노동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다 '여자라면 누구나 친절하다'는 통념이 더해지면서, 여성의 감정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유급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되지도, 제대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35. 위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2점]

① 감정노동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② 감정노동은 전통적 노동 개념의 한계를 비판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③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④ 감정노동은 성차별적 통념을 강화하는 요소를 고려해서 재평가해야 한다.
⑤ 서비스직에서 업무의 성별 분리가 강화되는 원인은 감정노동의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

36. 밑줄 친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감정노동은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업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② 감정노동은 정신적 노동이라기보다 스트레스를 동반한 육체적 노동이기 때문이다.
③ 감정노동은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④ 감정노동은 수량화하거나 매출이나 생산성의 증감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감정노동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와 소비를 촉진시키기는 데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37. 위 글의 필자가 〈보기〉의 내용을 비판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보 기〉

감정노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격자란 남을 헤아려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공자도 '자기를 이기고 예를 따르는 자세'(극기복례: 克己復禮)가 중요하다고 했다.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지 않고 헛된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할 테다.

현대인에게 쏟아지는 감정노동도 공자의 가르침과 비슷하지 않을까? 직장에서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며', '자기보다 남을 헤아리고', 언제나 친절한 낯빛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늘 이런 태도를 보이는 직원은 인격적으로 잘 가다듬어진 사람 아닐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장 생활은 나의 마음을 닦는 과정인 셈이다.

① 감정노동자들 가운데 여성이 많다. 그리고 그들 중에 우울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성은 인격 수양을 잘못한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② 감정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며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의 감정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과 사회 기여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③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감정노동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감정노동을 임금체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그것을 노동자의 인격 수양 방법인 양 교육해서는 안 된다.
④ 감정노동을 '좋다/나쁘다'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노동은 직장 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소통을 위해 감정노동의 자기 성찰성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
⑤ 자기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개인의 감정이 사회의 편견과 기업의 요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감정노동이 야기하는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적인 것(the aesthetic)'은 근대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미(美)만이 관조나 감상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관점이 쇠퇴하고, 근대 이후 숭고, 우아, 비극미, 희극미, 심지어 추(醜)까지 감상의 대상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었을 때 그 모든 가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치들은 근대미학 이후 감상자가 무관심적 태도를 취하여 대상을 바라볼 때 파악될 수 있다고 전제되었다. 따라서 미적인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근대 이후 전통적으로 미적인 것을 옹호하는 입장이 전제하는 무관심성이 허구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무관심성이 잘못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적인 논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_____㉠_____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관심성이 잘못되었다면, 미적인 것을 옹호하는 새로운 설명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그것의 타당성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무관심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미적인 것을 부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관심성'이란 원래 섀프츠베리가 주창한 개념으로서, 그는 행위의 윤리적 측면을 판단할 때, 그 행위에 이기적 동기가 배제되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오직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하지, 이웃의 칭찬이나 비판을 의식하여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개념을 미의 감상에 도입하여 미의 관조에서도 이기적 동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름다운 사물의 관조와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대조하면서 미의 관조는 무관심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 이래로 이기적이거나 관심적인 욕망들은 미적 감상을 파괴한다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러한 관심적인 것의 경우로는 지적·윤리적·경제적·육체적 욕구 등이 포함되어 미적인 것과 대비되고 있다.

당시의 영국 취미론에 영향을 받은 칸트도 무관심성을 수용하여 미적 판단을 설명하였다. 칸트로 대표되는 무관심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에는 세 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고 전제한다. 첫째는 단순한 ⓐ감각적 쾌(快)로서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감각적 쾌를 단순한 쾌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어떠한 생각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종류의 쾌는 ⓑ인지적 쾌(快)로서 우리의 생각, 믿음 혹은 예상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인지적 쾌는 단순히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감각적 쾌와 인지적 쾌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음에 반해, 세 번째 종류의 쾌는 위의 두 가지 쾌의 성질이 선별적으로 혼합되어 그 설명이 쉽지 않다. 세 번째 쾌인 ⓒ미적 쾌(快)란 오늘날에는 예술작품의 감상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현상적 속성을 감각하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상적 속성이란 감각적인 것으로 감각과 지각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 감각이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주어진 외부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며 어떠한 인지적 내용도 배제된 상태를 의미하며, 지각이란 인지적 내용이 가미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의 형태와 색채를 보았다면 그것은 감각의 상태이고, 그러한 대상이 사과라든가 배라는 것을 알고 본다면 지각의 상태인 것이다. 즉 현상적 속성을 감각한다는 것은, 미적 쾌를 두 번째 종류인 인지적 즐거움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인지적 내용을 배제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감각적 쾌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미적 쾌는 어떻게 단순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미적 쾌는 생각을 포함하지만 생각의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용과 형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경우에 내용이란 구체적인 것으로 매 작품마다 다른 것이나 소설의 형식이란 일정한 것으로 모든 소설이 지키는 불변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미적 쾌는 생각의 형식에 의해 촉발되기에 단순한 감각적 쾌와 구별되며, 또한 인지적 쾌는 그 생각의 내용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미적 쾌와 구별된다. 그러나 생각의 형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생각의 내용이 배제된, 따라서 어떠한 개념도 개입하지 않은 어떤 인지적 상태일 것이다. 칸트는 이를 대상의 형식적 현상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무관심적으로 대상을 볼 때 대상의 형식적 현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때 우리의 인식능력인 오성(悟性)과 상상력이 자유롭고 조화를 이루는 유희를 하기에 우리가 미적 쾌를 느끼게 되며, 비로소 대상이 아름답다는 미적 판단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상의 형식만을 파악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이후 미적 판단이 다른 판단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사고의 원천이 되었다.

한편 무관심성을 비판하는 입장은 미적 경험의 독자성이나 고유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경험의 전제가 되는 무관심성을 부정한다. 먼저 듀이는 인간 경험에 있어서 미적 영역과 그 밖의 영역을 구분한 것을 비판하면서, 미적 경험이란 어떤 경험이건 그것이 완결되어 매듭지어진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경험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기에 우리의 인지가 작용하여 나중에 추론적으로 구분된 경험의 영역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단계의 경험에서 미적인 것을 찾기에, 그에게 있어서 지적·윤리적·미적 경험의 구분이란 성립할 수 없다.

디키는 무관심적 태도 일반을 부정한다. 디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품에 접근하든 작품에 접근하는 동기가 다르다는 사실이 다른 종류의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아무런 목적 없이 단순한 쾌를 위해 음악을 감상하는 경우나 악곡 분석 시험을 위해 음악을 감상하는 경우나 그들은 그 음악에 대한 반응에서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주의를 기울이나 단지 주의의 대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 디키의 주장이다. 그는『카라마조프가의 형제』가 사회 비판적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읽히기 힘들다는 비판은, 예술의 영역이 일상적 삶의 영역과 무관해야만 한다는 무관심성을 전제했기 때문이고, 이는 무관심성이 잘못된 개념임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3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① '미적인 것'의 범주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② 듀이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험의 영역은 동일하다.
③ 동일한 작품이 평가의 관점에 따라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④ 디키의 미에 대한 관점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목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⑤ 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작품 감상은 무관심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39.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쾌(快)의 종류	사 례
①	ⓐ	밤을 샌 후 잠을 잘 때 느끼는 즐거움
②	ⓐ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③	ⓑ	일주일 뒤 자신의 생일임을 알고 느끼는 즐거움
④	ⓑ	시험을 잘 본 후 성적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한 즐거움
⑤	ⓒ	숲 속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느끼는 즐거움

40.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전제가 결론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논리적 가능성
② 전제보다 추론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적 가능성
③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한다는 논리적 가능성
④ 전제가 잘못되어도 결론이 옳을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⑤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는 논리적 가능성